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**보도참고자료**	http//www.mke.go.kr
자료문의 : 이승우 철강화학과장, 송현주 사무관(2110-5648)	

국내 후판 생산 천만톤 시대 개막

- 후판 자급도 81%로 껑충 -

- 포스코, 연간 200만톤 광양 후판공장 준공식 개최 -

□ **연간 200만톤 포스코 광양 후판공장의 준공**으로 **대표적 수급 불안 품목**인 **고급후판의 국내 자급율이 62%에서 81%로** 증가됨

* 후판수급('10, 천톤): **생산(8,997)**, **소비(11,040)**, 수입(4,089), 수출(2,046)

○ 오늘 준공한 후판공장은 '08년 8월에 착공해 2년여의 공사 끝에 이번에 준공식을 갖게 됐으며 생산된 후판은 조선용, 해양 구조용, **에너지 강재** 등으로 사용됨

- 이는 초고층 건물 증가, 에너지 채굴환경의 악화 등으로 가볍고, 강하며, 녹슬지 않는 **고급재의 수요증가에 대응**하고,

- 일본 지진으로 일본 철강회사로부터 소재를 공급받아온 조선, 중공업, 강관회사의 **소재확보 어려움을 최소화**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임

□ 포스코는 금번 광양 제철소 후판공장 건설에 총 1조 8,000억원을 투자했으며,

○ 이번 준공으로 포스코는 700만톤의 후판생산능력을 갖게 됨으로써 **세계 최대 후판생산**(포항: 500만톤 + 광양: 200만톤 = 700만톤) 회사로 도약

○ 또한 **세계 최고의 품질, 세계 최대폭**(5,300mm)**의 후판** 등 다양한 종류의 후판을 **적기 공급**하여 **후판 수요산업의 경쟁력 강화**에도 기여할 전망임

○ 특히, 포스코는 지난해 고도제한 규정에 묶여 공사가 중지됐다 규제완화로 공사가 재개돼 금년 3월말 준공예정인 신제강 공장이 가동되면,

- 이곳에서 생산되는 슬라브를 이용해 본격적인 후판생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임

□ '11.3.28(월), 광양제철소에서 개최된 준공식에는 **지식경제부 안현호 차관**, 정준양 포스코 회장, 박준영 전남도지사, 우윤근 국회의원 및 관계자 등 **900여명이 참석**하였음

○ **안현호 지경부 차관**은 축사를 통해 **기술개발**을 통해 **철강제품의 기술 자립도**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,

- 이번 광양 후판공장의 준공은 그러한 기술개발노력의 결과이며, 앞으로도 기술개발을 통하여 **최고급 제품개발에 노력**해 줄 것을 주문함

- 또한 **정부**도 초경량 고강도 스마트 철강 등 **핵심소재의 개발**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**저탄소제철기술 개발**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힘

붙임: 포스코 광양 후판공장 준공식 개요.

참고 포스코 광양 후판공장 준공식 개요

□ 행사 개요

○ **일시** : '11.3.28(월), 16:00 - 17:10

○ **장소** : 전남 광양제철소 후판공장 加熱爐 옆 테마공원

○ **참석자**

- 지식경제부 안현호 차관, 정준양 회장, 지역인사*, 고객사, 설비 공급사 등 190명

* 전남도지사(박준영), 광양시 국회의원(우윤근), 광양시장(이성웅), 시의회 의장(박노신)

○ **식순**

시 간	내 용	비 고
16:00 - 16:03	개회식 선언	
16:03 - 16:05	국민의례	
16:05 - 16:10	내빈 소개	
16:10 - 16:15	준공 현황 보고	
16:15 - 16:25	포상, 감사패 증정	
16:25 - 16:30	준공 기념사	기념사 - 정준양 회장
16:30 - 16:50	축사	축사 - 지경부 제1차관 외 5명
16:50 - 17:10	Switching ceremony 및 폐회선언	

※ 사업 개요

○ **목적:** 포스코 광양 후판공장 신설을 통해 **후판 공급부족을 해소**하고, 조선, 강관 등 **후판 수요산업의 경쟁력 강화**

○ **사업 내용:** 연간 후판 200만톤 생산('08.8 - '10.8)

* 후판수급('10, 천톤): 생산(8,997), 소비(11,040), 수입(4,089), 수출(2,046)